

순천만정원 오색빛깔 봄꽃 향연 즐겨요

튤립·유채·장미...봄향기 흠뻑
뮤직 서바이벌·서커스 쇼 등
5월 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올해 축제를 맞아 새로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 드레스가든에서 한 관광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봄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봄꽃향연’이 오는 5월 6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순천만국가정원 봄꽃향연’에서는 튤립·유채·작약·장미·철쭉 등 화려한 화훼 연출과 문화행사로 메인공연인 국가정원 뮤직서바이벌부터 코미디 서커스 쇼, 풍선아트와 함께하는 꼬꼬마 DJ파티 등 젊은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대공연까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입구에 들어서면 오색빛깔의 봄꽃이 드넓게 펼쳐져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녹인다. 봄바람에 실려 퍼지는 향긋한 꽃내음이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선사한다.

장미정원에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든 ‘봄꽃드레스(드레스가든)’는 이번 봄꽃 향연동안 꼭 찾아가야 할 플레이스로 꼽힌다. 봄기운이 물씬나는 근사한 드레스를 입고 나만의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 경연대회 형식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국가정원 뮤직 서바이벌’이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주말 오후 4~5시 동문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심사를 통해 3대 1의 경쟁률

로 선정된 32팀을 대상으로 하루에 2팀씩 관람객이 직접 판정단이 돼 당일 우승팀을 선정한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판정단 150명의 현장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저글링 퍼포먼스와 마임이 어우러진 무언극 형태(넌버벌퍼포먼스)의 공연 ‘코미디 쇼’는 봄꽃향연 기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유명 아티스트 ‘팀퍼니스트’ 특유의 코미디 진행력은 관람객에게 실재없는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

다. 행사는 주말, 공휴일 1일 2회(오후 2시~5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30분간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행하기 좋은 봄날,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달콤하고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1년 동안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 등 1000원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생태문화 관광도시’ 순천시 2개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순천시가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와 ‘생태문화 관광도시’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순천시는 3일 국가브랜드선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국내 기업 등이 보유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선별된 상위브랜드를 후보로 만16세 이상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순천시가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조선시대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생태문화관광 1번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성터 둘레길과 문화의 거리 등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고 선암사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기독교역사박물관 등 역사문화관광으로 관광자원의 경쟁력도 높여 가고 있다.

또 정원과 자연, 문화와 함께 하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넉넉한 인심과 화사한 미소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순천”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19 순천 방문의 해에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1위로 선정돼 더욱 영광이다”며 “앞으로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명성에 어울리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꽃도 구경하고 건강도 챙기는 순천만 ECO 국제 걷기대회가 6일과 7일 이틀간 순천 장대공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회에 참가한 외국 관광객들. <순천시 제공>

순천만 ECO 국제 걷기대회 6·7일 개최

‘제9회 순천만 ECO 국제 걷기대회’가 6일과 7일 이틀간 순천 장대공원에서 개최된다.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대회에는 동호회원 등 전국에서 참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9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도 몇몇 개화시기에 맞춰 치러지면서 일찍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시는 걷기 코스마다 아름답게 장식된 봄꽃의 향기로 인해 참가자들이 봄의 향연을 느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첫날 장대공원에서 순천만습지까지 이어지

는 동천변 코스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틀째인 7일에는 장대공원에서 서면 구만교까지 서천변 코스로 5km, 10km, 25km를 걷게 된다.

참가신청은 대회 당일 현장에서 오전 10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코스를 완주한 선수들에게는 완보증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최적의 걷기코스개발,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신청하세요

12일까지 접수...1대 당 500만원 지원

순천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 폐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500만원

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량일 경우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12일까지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또는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30일까지 ‘지역 혁신활동가’ 모집

순천시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혁신 추진체계 확립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활동가’를 모집한다.

지역 혁신활동가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 인적 자원이다.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혁신활동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있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된 혁신활동가는 혁신 인력풀로 편성돼 민·

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시민참여 정책수립 지원 등 사회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혁신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연구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이면 누구나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될 인적자원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가짜뉴스에 숨 막히는 세상 신문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맑은 뉴스가 퍼져나오는 뉴스 청정기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